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8호 【루계 제23375호】 주체100(2011)년 2월 27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개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개건된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개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훌륭히 개건된 극장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기남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주상성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김창섭동지와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협주단예술인들은 이날 공연무대에 혼성6중창과 합창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은금병창과 합창 《흰눈덮인 고향집》, 혼성2중창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녀성5중창 《향도의 해빛아래 꽃피는 강산》, 녀성4중창과 소합창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남성독창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녀성독창과 방창 《인민사랑의 노래》, 녀성독창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남성기타4병창 《전선에서 만나자》, 손풍금3중주 《발걸음》, 합창시 《내무군의 맹세》, 녀성독창과 합창 《래일을 믿으라》, 종곡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사랑의 품속에서 억세게 자라나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 인민의 보위자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자기들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60여년의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빛내이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 사회주의조국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온 내무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또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영원히 사상도 뜻도 숨결도 운명도 함께 하며 계급투쟁의 제일선부대, 당의 내무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철통같이 지켜갈 인민내무군 군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인민내무군 장병들을 항일의 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그대로 지닌 당의 정치보위자로,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인민내무군 군인들의 불타는 충정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열화같은 흠모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예술단체의 예술인들답게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협주단의 연혁자료를 보시고 해방직후 내무국악단으로 조직된 인민내무군협주단이 창립후 지난 60여년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혁명적군인예술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그 나날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김원균, 경희극 《산울림》을 창작한 리동춘을 비롯한 혁명적이며 재능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수많이 배출하였다고 하시면서 협주단이 쌓아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내무군협주단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예술창조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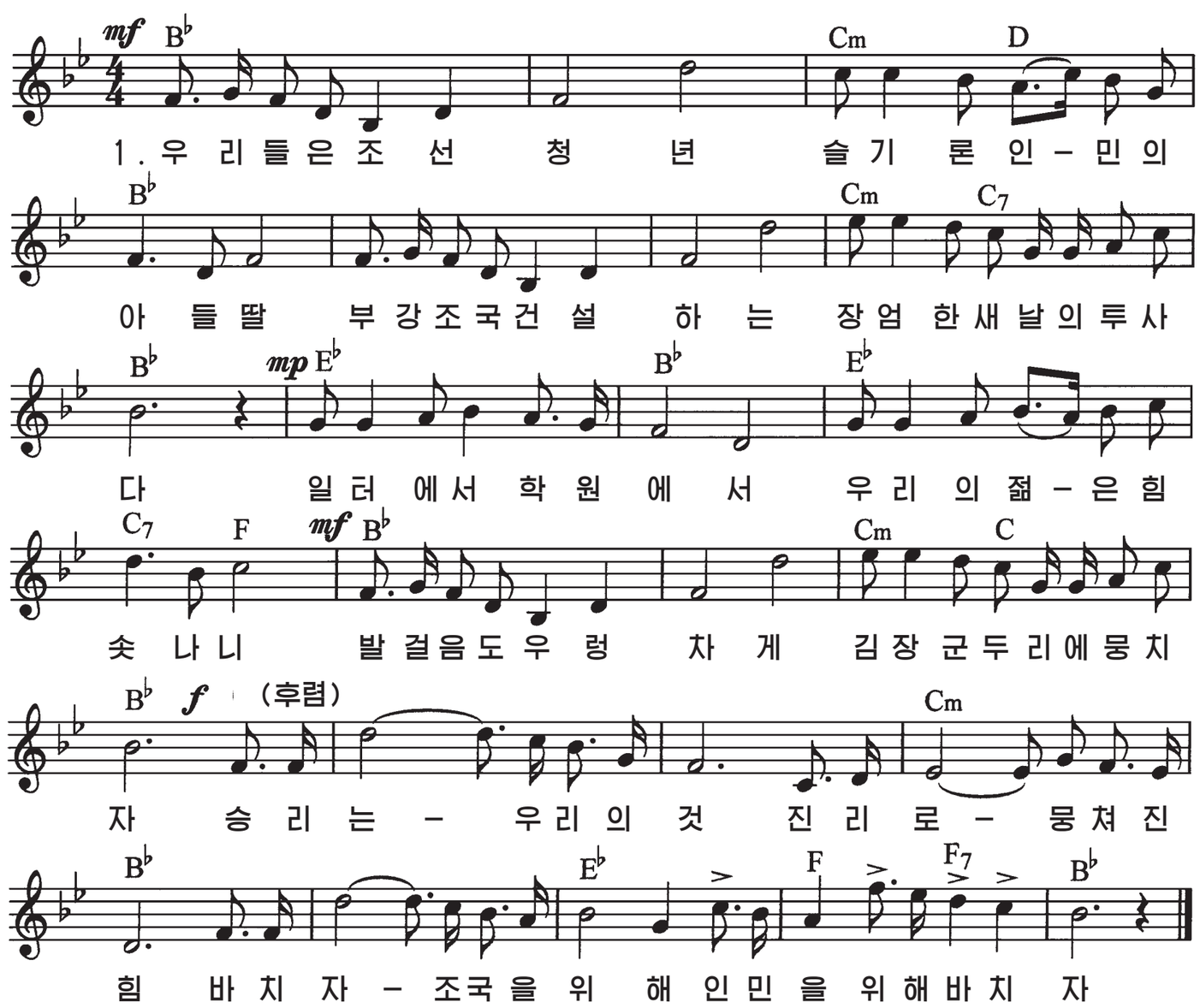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또다시 보아주시며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술창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인민내무군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청년행진곡

행진조로 힘있게

작사 김련호, 작곡 김원균



2. 인민들의 크나큰 힘 내 나라 강산에 넘친다
항일의 빛난 전통 우리는 억세게 지키리
모든 희망 모든 행복 우리의 이 손에 있나니
붉은 기발 하늘높이 김장군 두리에 뭉치자
(후렴)

3. 우리들이 나가는 곳 어렵고 겁날것 없어라
온 세계를 앞서나갈 광활한 앞길은 열렸다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우리의 젊은 힘 뻗나니
동무들아 어깨겯고 김장군 두리에 뭉치자
(후렴)

축 하 문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선군청년총동원대회가 열리였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는 선군혁명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억세게 다져온 청년대오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뜻깊은 대회이며 청년전위들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결사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의의깊은 대회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애국적헌신성을 지니고 피끓는 청춘을 바쳐 대고조진군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나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부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력량으로 규정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일관하게 청년중시의 정치를 펴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들을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전위부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명실공히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수령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청년동맹이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선군혁명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청년들은 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청년들은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총폭탄이 되고 성새, 방패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였으며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와 혁명적기질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의 청년들은 반제반미대결전의 전초선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지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을 무적의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는데 공헌하였다.

우리의 용감한 청년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여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전투장마다에서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날에날마다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켰으며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안아오고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우리 청년들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정보기술과 핵기술, 생물공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교육과 문학예술 등 문화전선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에는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옮길 불타는 일념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온 우리의 미더운 청년전위들의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고귀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을 담당하고있는 활력있는 전투부대인 500만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며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기에 선군조선의 미래가 창창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격전장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과 공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으며 우리 당은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대고조진군의 돌격대인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있다.

청년들은 당의 부름에 청춘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를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오늘의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선군조선청년의 전투적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전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이며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치렬한 대결전이다.

청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기념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운동을 힘있게 벌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령의 유훈과 령도자의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장한 모습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청년운동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새 세대 선군혁명동지가 되여 위대한 장군님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열혈의 투사가 되여야 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철석같은 신념과 불변의 의지를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 총공세의 산울림을 높이 울리며 대고조진군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청년들이 기세를 올리면서 들끓어야 전국이 들끓게 되고 온 나라에 약동하는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된다.

청년들은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조국의 큰 집도 다 걸머지고 최첨단의 패권도 다 쥐겠다는 크나큰 포부와 열정을 지니고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훈을 창조하여 시대가 알고 인민이 사랑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바람,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려는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데서 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돌격전과 생산경쟁, 청년돌격대활동을 본때있게 벌려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창조하며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청년들은 과학기술강국의 당당한 주인이 되겠다는 포부와 열정, 적들의 과학기술봉쇄를 주체의 과학기술로 짓뭉개버리겠다는 만만한 투지와 배짱으로 최첨단돌파전의 전렬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리며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비롯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혁명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교육과 문학예술,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의 제일신봉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 조국보위초소에서 총과 함께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여야 하며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를 철통같이 다지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나라와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본태를 지키고 꽃피워나가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총발동시키고 청년들이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초급단체강화를 전동맹강화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초급조직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동맹초급일군들이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맹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게, 혁신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기는데서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0(2011)년 2월 26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과시하자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진행

선군청년총동원대회가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문화궁전 대회장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이며 선군혁명의 주력부대, 대고조진군의 돌격대로 위용을 떨쳐가는 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당의 부름따라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친 청년혁신자들, 모범적인 청년학생들, 청년동맹일군들, 전세대 청년영웅들을 비롯한 공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57(1968)년 4월 13일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서 하신 연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를 육성록음으로 청취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붉은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선군청년총동원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청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옹위하는 제일결사대가 되자!》, 《**김정일**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공로자들, 모범적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긴 축하문을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서 활력있는 청년대군으로서의 위력을 떨쳐갈 맹세의 구호를 힘차게 불렀다.

대회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드높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선군혁명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억세게 다져온 청년대오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을 과시하는 뜻깊은 이번 대회는 청년전위들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결사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운동이 주체의 기치따라 선군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들을 혁명의 전렬에 세워주시였다.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중시정치를 펼치시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이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청년들을 정신력의 강자, 경제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키워주시였다.

청년들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과 함께 청춘시절을 빛내이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을 찾으시여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고 청년들이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은 청년들에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배짱과 담력으로 최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해주신데도 뜨겁게 어려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새 세대들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용감한 참전자들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은 우리 청년들을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준 원동력이였다.

보고자는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추호의 동요없이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청년중시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주체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오늘 청년들앞에는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선군혁명의 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쳐야 합니다.》

보고자는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인 청년들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며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선군조선청년의 담대한 기상과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청년들이 당대표자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에 높이 모셨던 항일의 청년전위들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온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우리 당을 신뢰하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김혁, 차광수가 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의 청년들은 1차소비품을 비롯한 전반적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청년들이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생산돌격전에서 기수가 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농업부문의 청년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간직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숭고한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일신시키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구현하여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으며 학생청년들은 열심히 배워 선군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며 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태를 지키는데서 청년들이 모범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선군청년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평양시청년동맹 1비서 리군철은 오늘의 대고조는 수령결사옹위전이며 당과 조국에 바치는 청년들의 충정도 애국도 증산에 있다고 하면서 수도의 청년동맹조직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답사행군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진 철령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한 강원도청년동맹 비서 김중일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만포방사공장 로동자 주일남, 평양방직공장 로동자 문강순, 평양곡산공장 초급청년동맹비서 박학철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길에서 청년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청년들의 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것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달아주신 비약의 나래를 펴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주공전선의 앞장에서 내달릴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원천보장과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발휘된 청년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은 지방공업혁명의 봉화가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고 하면서 창성군청년동맹 1비서 리순철, 회창군기초식품공장 작업반장 김향숙은 모든 청년들이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살며 일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장 리광남,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비서 안영민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기수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쌀로써 당을 받들어갈 애국의 한마음으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온데 대한 그들의 토론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에서 청년들이 분발한다면 알곡생산목표를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전국의 모든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청년동맹 1비서 리윤삼은 강철이자 인민생활이고 강성대국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청년들이 김철의 실천력으로 주체철생산에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성강과 강선,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청년동맹조직들이 생산돌격의 선봉에 설것을 호소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청년동맹 1비서 오철억, 3월5일청년광산 초급청년동맹비서 강승혁, 평양기관차대 책임기관사 고윤철은 청년들이 경제전선전반에서 일대공세를 벌려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4면으로 계속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청년들이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모두가 청년영웅이 되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공격전이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선군청년총동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는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백두의 혈통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안고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려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불굴의 기상이 힘있게 과시된 뜻깊은 회합이였다.

오늘 우리 선군조선의 청년들은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령도자와 사상과 뜻,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청년전위의 본분을 지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며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위훈으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선봉투사로서의 가장 참된 삶을 값높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력사와 빛나는 현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우리 청년전위들에게 점령 못할 요새,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노도쳐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실증하여주고있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인 500만 청년전위들이 존엄높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예를 걸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뒤흔들고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영웅적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질과 위용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다음해 2012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김일성민족사의 가장 뜻깊은 해, 인류사적대경사의 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믿음을 안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였으며 부강조국건설투쟁을 이끌어오신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청년대군을 제일로 굳게 믿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리정표를 세우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작전도에 새기신 화살표따라 총공격전의 마지막결승주로를 내달려야 할 중대한 이 시각 혁명의 전세대들의 넋이 영원한 시대의 메아리로 우리 청년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청년들이여!

선군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표대인 우리 당의 성스러운 붉은기폭에 어려있는 항일의 공청원들, 전화의 나날과 천리마시대의 민청원들을 비롯하여 혁명의 년대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을 서슴없이 내댄 전세대청년들의 고결한 삶과 자랑찬 위훈을 새겨보라.

이 땅우에 솟아난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보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끓어라 청춘아 불타라 심장아의 노래 높이 부르며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성실한 땀이 바로 거기에 스며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돌격전의 나팔소리 높이 울린 지금이야말로 우리 500만 청년대군이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우리 장군님의 강성대국리상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워야 할 때이다.

이것은 시대와 력사,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우리 청년들의 성스러운 의무인 동시에 위대한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만을 받아안으며 자라난 우리 세대의 마땅한 도리이며 량심이다.

우리 지금까지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 강성대국건설의 제일돌격대가 되겠다는 맹세를 얼마나 많이 다져왔던가.

김일성민족의 성스러운 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해야 할 총공격전에서 우리는 그 맹세가 빈 구호가 아니였음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그리고 혁명의 전세대들앞에 엄숙히 총화받아야 한다.

이 책임적인 시각에 우리 청년들의 심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쳐야 하며 총공격전의 순간순간, 날과 달을 어떻게 빛내여야 하겠는가.

오늘의 총공격전은 청년들의 활무대이며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대고조전투장 그 어디서나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다.

청년들이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청년전위답게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피끓는 청춘을 바치자!

승리의 축포성, 환희의 축포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터져오를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우리 청년들이 남먼저 달자!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기념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운동에로!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청년들의 제일생명이며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강성대국의 승리가 있다.

주체혁명의 심장이시고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육탄이 되여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고 리수복, 길영조가 되자!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며 우리의 청년대오를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정의의 대오로 더욱 철통같이 다지자!

백두의 혈통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의 신념을 안고 위대한 당의 거룩한 향도의 발걸음에 박동을 맞추며 한마음한뜻으로 싸워나가자!

오늘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선군조선청년들의 심장은 응당 조국의 큰 짐도 두어깨에 모두 걸머지고 최첨단의 패권도 다 쥐겠다는 드높은 포부와 열정으로 차넘쳐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전선들이 격전장이라면 우리 청년들이 지켜선 매개 초소는 공격전의 제1선참호이다.

이 땅에 사는 청년이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맡은 초소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방으로, 리수복영웅이 열어제낀 전승의 돌격로로 여기고 오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자!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산으로, 바다로, 탄광, 광산으로 용약 떨쳐나섰던 천리마시대 청년들처럼 오늘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선군조선청년의 본분을 다하자!

경제강국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자!

오늘의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은 경공업이다.

올해를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경공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는것이 경제강국건설의 성숙된 요구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는 지금 경공업부문의 청년들이 기세를 올리고 공격속도를 높여야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더 세차게 휘몰아치고 총진군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경공업부문 청년들이여!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긍지와 자부심,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제품이 도처에서 쨍쨍 쏟아져나오게 하자!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때벗이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추켜들고나가는 선구자가 되자!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알곡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총공격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없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나라 농장벌을 찾으시며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그토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모습, 간곡한 유훈을 우리 어찌 순간이나마 잊을수 있겠는가.

농업부문 청년들이여!

우리 장군님께서 농사문제때문에 더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쌀로써 우리 당을 받들고 옹위하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청년이 되자!

지금 우리 당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청년들이여!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과 증산경쟁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청년건설자들이여!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 청년, 그 이름을 빛나게 새기라!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2012년까지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를 기어이 완공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선군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자!

최첨단돌파는 선군조선청년들의 리상과 포부, 담력과 의지로 되여야 하며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지식경제시대에 사는 청년답게 누구나 최첨단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청년과학기술행군에 적극 참가하며 CNC화, 현대화된 기계,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준비하자!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긍지와 자부심높이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최첨단돌파전의 전초병,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영예로운 1번수가 되라!

청년대학생들이여!

당이 제시한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불타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 실력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나가는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골간, 세계적인 인재대국의 주인공으로 튼튼히 준비하자!

청년들이여!

이 땅의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며 더 많은 청년림을 조성하여 온 나라 강산에 푸른 숲 설레이게 하자!

청춘의 삶이 시작되고 꽃펴난 고향과 일터에 대한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선경마을, 선경도시로 꾸리자!

무적의 군력을 담보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당 선군혁명로선의 중요한 요구이며 오늘의 대고조는 선군대고조이다.

총대를 떠나서 통일된 강성대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청년들이여!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 서서 총대로 조국과 혁명을 지키는 선군혁명의 근위병사로 살며 싸워나가자!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 원군기풍을 세워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청년들이여!

주체혁명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오늘의 대고조진군에 제동을 거는 온갖 이색적인 현상들을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단호히 짓뭉개버리자!

청년동맹일군들이여!

청년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 청년동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자!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전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초급단체강화에 큰 힘을 넣으며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전동맹을 명실공히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령도자의 결심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결사관철의 선군혁명조직으로 튼튼히 꾸리자!

강성대국건설대전에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기념 사회주의경쟁과 청년돌격대활동,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비롯한 대중적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배워 늘 대고조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과 긍정감화교양방법으로 청년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진격의 나팔수, 송풍기가 되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투쟁의 성과여부는 바로 오늘의 총공격전에 진입한 우리 청년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앞에 주저앉아 한치라도 물러선다면 우리 장군님 펼치신 총공격로에 빈자리가 생기게 된다.

먼 후날 후대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끼는 우리의 오늘날 청춘시절이 조금이라도 그늘진다면 우리 어떻게 위대한 선군시대, 대고조시대의 청년들이였다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기념 전투기록장에 하루하루의 위훈을 자랑스럽게 기록하며 우리 세대가 천리마시대의 청년들을 추억하듯이 후대들이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인 우리들을 값높이 추억하게 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늘의 총공격전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용암처럼 끓어넘치는 선군조선청년들의 정신력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다시한번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자!

500만 선군청년전위들이여!

강성대국건설의 직선주로를 맨 앞장에서 달려 우리 장군님 아시는 청년영웅이 되자!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진군 앞으로!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주체100(2011)년 2월 26일

지상연단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 나라의 쌀독이 차고넘쳐야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인민경제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당면한 영농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농업성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공동사설에도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올해농사를 잘 짓자면 당면한 봄철영농전투를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상: 옳은 말이다. 봄철영농전투에서 중요한것은 앞그루농사를 잘하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앞그루농사를 잘해야 뒤그루농사도 안전하게 지을수 있다. 그중에서 지난해 가을에 심은 밀, 보리가꾸기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을에 심은 밀, 보리포전들에 비료와 거름주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부침땅의 지력이 높아져 겨울을 난 밀, 보리들이 왕성하게 자라 웅근소출을 낼수 있게 된다. 봄보리와 밀심기도 소홀히 할수 없다. 벌써 서해벌방의 여러 지역에서 봄보리와 밀심기가 시작되였다. 봄보리와 밀심기를 적기에 하자면 포전정리를 잘하고 로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앞그루감자심기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올해에 농장들에서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많이 늘인것만큼 일군들이 영농전투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우선 감자종자선별과 싹틔우기, 랭상처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적지선정과 포전정리를 잘해야 앞그루감자심기를 적기에 할수 있다.

물론 이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하자면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방법론있게 내밀면 얼마든지 앞그루농사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기자: 씨뿌리기준비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중요한 영농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처장: 그렇다. 철을 다투는 씨뿌리기를 성과적으로 하자면 우선 모판자리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모판에 낼 거름과 부식토, 흙보산비료도 충분히 장만되였는가를 따져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람막이바자와 활창대, 비닐박막준비도 원만히 되였는가를 알아보고 부족되는것이 있으면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제때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종자처리에 필요한 농기구들을 충분히 장만하며 특히 종자소독을 제때에 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모든 농장들에서 논밭갈이준비도 잘하여야 한다. 땅이 녹으면 논밭갈이를 시작할수 있게 농기계준비를 손색없이 해야 한다.

기자: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다. 봄철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상: 농업생산은 누구나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물론 농업생산을 직접 담당한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업부문에 보내주어야 할 영농물자와 자재를 제때에 보내주는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부문에서 많은 영농물자와 자재를 농촌에 보내주었다. 이것이 하나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여 오늘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섰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열정안고 떨쳐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함으로써 당면한 봄철영농전투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당면한 영농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농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일군들의 자각이 중요하다

올해공동사설에는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고 지적되여있다.

생명선, 생각만 해보아도 어깨가 무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의 지휘관이라는 자각이 앞서기때문이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자면 두벌농사를 잘하여야 한다. 년중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오래동안 지속되는 북부산간지대인 장강땅에서도 두벌, 세벌농사를 하는데 비교적 조건이 유리한 벌방지대에서야 왜 두벌농사면적을 늘이지 못하겠는가.

우리 위원회일군들은 이 생각으로 온 밤을 지새우다싶이 하였다. 그 과정에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더욱 늘일것을 결심한 우리들은 이 문제를 토의하였다. 앞그루감자를 많이 심자면 적지부터 잘 선정해야 한다. 사실 앞그루감자농사가 어렵다고 말할수 있다.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한 우리는 현지에 나가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역시 대중은 선생이였다. 대중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앞그루감자농사방법이 나왔다. 포전들에 물도랑을 깊이 내면서 두둑을 높이 지으면 습기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아 얼마든지 앞그루감자농사를 지을수 있다는것이다. 관해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지난 시기 일부 면적의 논에서 이 방법으로 앞그루감자농사를 하였다. 이 농장들의 경험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면 군적으로 많은 면적의 논에서 앞그루감자농사를 지을수 있다.

우리는 지금 뒤그루농사준비도 빈틈없이 하고있다. 두벌농사는 시기를 다투기때문이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되여야 한다. 뒤그루농사도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해야 할 일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 일군들은 뒤그루농사준비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하도록 하고있다.

모든 농장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두벌농사를 잘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윤전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윤석만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제때에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면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여러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여기에 알곡증수의 예비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들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고있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인데 있다.

지난 기간 우리 작업반에서는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유기질비료생산과 흙보산비료생산, 종자싹틔우기, 모기르기 등 영농공정의 여러 분야에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성과에 만족할수 없다.

나는 지상연단을 통하여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때 농사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수 있다는것을 전국의 작업반장들에게 말하고싶다.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주인이 바로 작업반장들이기때문이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

은률군 구월농장 작업반장 김인철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빛내이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에 신심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농사차비는 물론 씨뿌리기준비까지 기본적으로 끝낸 자랑안고 당보지상연단에 나서게 되니 긍지도 높고 결심도 확고하다.

농장에서는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지난해보다 1.5배나 더 생산하여 필지별로 따져가며 포전들에 실어냈다. 그리고 종자준비,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 모뜨는기계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 양수동력설비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내면서 분조마다 많은 중소농기구를 확보해놓았다. 올해에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할수 있은것은 우리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며 일하였기때문이다.

몸소 농장을 여러차례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사를 집약화, 과학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농업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서서 선봉적역할을 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우리 미곡리사람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올해농사차비를 잘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농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농장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여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로 씨붙임을 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농장에서는 지난해 농사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끄떡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들을 찾았다. 그리고 년초부터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내밀었다. 사회주의경쟁의 세찬 불길속에서 청년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들에서 여러가지 비료원천들을 확보하였으며 진거름생산을 통이 크게 내밀어 모든 포전에 실어냈다. 그뿐이 아니다.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우렁이양식에 품을 넣어 전면적에 받아들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도 열어놓았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것이 우리 미곡리사람들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변함없이 온 나라 농촌의 앞장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윤희

안아올 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든다.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풍요한 가을을
—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태양의 해발아래 활짝 피여나는 꽃송이들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어린이들의 붓글씨, 그림작품집을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교양원들과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해마다 맞는 1월 5일은 끝없는 영광과 자랑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행복의 날, 기쁨의 날이다.

주체89(2000)년 1월 5일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의 한 어린이가 삼가 올린 글작품집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로부터 6년이 되는 주체95(2006)년 1월 5일에는 이 유치원의 구대홍, 김혁일어린이들의 서예와 그림솜씨를 보아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올해에도 이날에 또다시 이 유치원어린이들이 창작한 붓글씨, 그림작품집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던것이다.

이 유치원어린이들이 창작한 작품마다에는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이 아름답게 비껴있다.

사랑의 축복속에 꽃피는 재능

붓글씨작품집과 그림작품집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들은 주제와 사상이 명백하고 개성적이다.

《일필휘지》라는 말이 있듯이 서예에서는 단 한번의 붓질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내재하고있는 모든 감정과 정서가 충분히 표현되여야 한다. 그러나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것이 서예이다.

5, 6살밖에 안되는 유치원어린이들이 자그마한 붓에 사랑과 보답의 마음을 담아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것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청봉체로 6살 난 한철범어린이가 쓴 붓글씨작품 《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면 오실가 우리 장군님》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익히고 다듬은 자기들의 재간무대를 펼쳐보임으로써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이 유치원어린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절절하게 어려온다.

5살 난 김위강어린이는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에서 원아들이 들고나가는 붉은 기발에는 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백두산에서부터 휘날려온 붉은기를 자신께서 들고나가겠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듣고 붓글씨작품 《백두의 붉은 기발》을 창작하였다.

이밖에도 《따르는 한마음》(김철경 5살), 《강철기둥》, 《더 좋은 래일》(리진혁 6살), 《가슴에 빛나는 빨간별자랑》(김강군 5살), 《붉게만 피는 꽃봉오리》(박유경 5살) 등 이 유치원어린이들이 창작하여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10여편의 붓글씨작품들은 하나같이 사상주제적내용이 뚜렷하고 예술적형상이 훌륭한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유치원의 재간둥이들이 창작한 그림작품들에도 아버지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어려있다. 유치원어린이들이 동심세계에 맞으면서도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 그림작품들을 창작하였다는것은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5, 6살에는 사물현상을 평면적으로 감수하지만 이곳 어린이들은 그림을 원근감과 명암관계를 잘 살려 립체감이 나게 그리였다.

김인홍(6살)어린이는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백두산3대장군의 고향집들을 색연필화로 형상하였으며 어서 커서 인민군대가 될 결의를 담은 《돌격 앞으로》를 유치원의 군사놀이를 형상하여 운동감이 나게 생동하게 그렸다.

조류정(5살)어린이의 색연필화 《우리 당기발》, 《축원의 마음》, 원강훈(5살)어린이의 색연필화 《10월 10일》, 《나도 더 큰 기쁨 드릴래》, 유일명(6살)어린이의 색연필화 《우리 위성》, 《불보라》를 비롯한 그림작품들은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세상에 존엄높은 우리 당, 우리 조국을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은 이 유치원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소중히 담고있다.

참으로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기고 활짝 꽃피워주는 위대한 품,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있어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의 어린이들과 같은 뛰여난 재간둥이들이 재능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다.

비옥한 토양에 뿌리내리고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은 지난 기간 꼬마시인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김일신을 비롯하여 해마다 수많은 재간둥이들을 배출한 자랑많은 단위이다.

유치원이 수많은 재간둥이들을 배출할수 있은것은 이곳 교육자들이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왔기때문이다.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천성적인 소질과 취미를 정확히 평가하고 찾아내는 사업을 언제나 중요시하고있다.

취미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재능의 전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이 이들이 오랜 기간 재간둥이들을 키워오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교훈이다.

수재교육에서는 천성이 기본이다.

유치원에서는 설사 부모가 요구한다고 하여도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 능력을 가려보고 그에 따라 교육을 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꼬마화가로 자라나고있는 김인홍어린이의 경우만 놓고보자.

그의 부모는 그가 노래를 불러도 감정을 담아 정서적으로 부르는것을 보고 음악을 배워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훈교원 박춘옥동무는 그를 전면적으로 관찰하여보는 과정에 그가 음악보다 미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아이들보다 사물현상에 대한 뛰여난 관찰력과 상상력, 풍부한 감정은 미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수 있는 재능의 전제라고 찾아보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그림을 그리게 된 어린이는 한번 본 대상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가지고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찾아낼줄 아는 자기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놀라운 재능을 펼쳐보이기 시작하였다.

로력영웅이며 인민교원인 원장 김옥선동무는 이처럼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정확히 찾아내게 하기 위하여 교양원들이 실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요구성을 강화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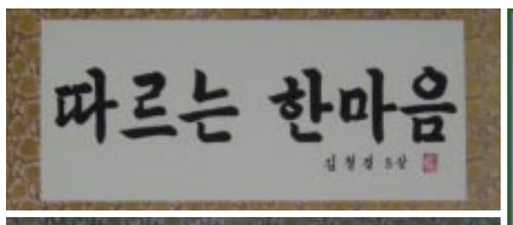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때없이 제기하는 물음과 행동, 눈빛과 손짓 등에서 그들의 소질과 취미를 분석하고 천성적인 재능의 싹을 찾아내려면 전문가이상의 실력을 지니고있어야 한다고 그는 늘 교양원들에게 강조하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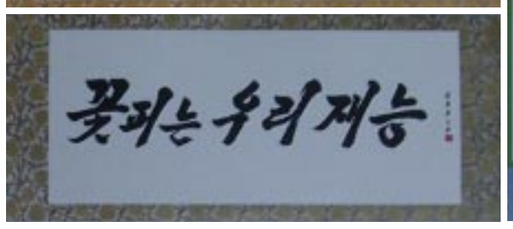
지난 시기 문학과 음악, 미술, 콤퓨터 등 여러 분야의 재간둥이들을 해마다 많이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이런 높은 요구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원장을 비롯한 교양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을 재간둥이로 키우기 위해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교육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뛰여난 재간둥이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참된 교육자들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은 비옥한 토양이 되여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꽃피우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경철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청춘대지》가 나왔다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청춘대지》(박태수 작)를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소설은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발기하시고 진두지휘하시여 조국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당은 지금까지 모든것을 빈터에서 시작하여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왔습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청춘대지》는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1990년대말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때 강원도토지정리를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는 력사적사실을 생동하고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모든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조차 토지정리에 대하여서는 생각도 못한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차창가에 스치는 울망졸망한 뙈기논들을 보시면서 새 세기를 앞둔 조국과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신다. 뙈기논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 우리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짓고싶어하던 소원이 풀리면 내 소원도 풀릴것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되새겨보신다.

이 땅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과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땅답게 변혁시킬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그 첫 동음을 뙈기논이 많은 강원땅에서부터 울리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여 이 땅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마지막지경을 허물고 사회주의적인 새 지경을 긋게 되는 거창하고 력사적인 대자연개조사업이 시작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전국이 총동원되여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할데 대한 국방위원회명령도 하달하시고 인민군군인들도 보내주시면서 이 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이 나날에 토지만 변모된것이 아니였다. 사람들은 우리가 딛고있는 땅이란 무엇이며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천지개벽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토지정리전투장에서 새 세기에 찬란히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미래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불굴의 투사로 성장해간다.

그리하여 강원땅의 토지정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성과적으로 완공되게 된다.

소설은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이 땅에서 봉건적토지소유의 마지막잔재를 청산하고 조국땅을 명실공히 김일성조선의 국토로 전변시키신 창조의 거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라는것을 힘있게 확인하였다. 소설은 천만군민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이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치시는 이 땅에 대한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백열전을 벌리게 될 국내축구경기들

올해에 우리 축구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온 나라가 드세찬 축구열풍으로 흥성이게 하는 다채로운 국내축구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월 20일에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올해의 첫 최상급축구련맹전이 막을 올리였다. 이번 1차련맹전에 이어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와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10월의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최상급축구팀들의 련맹전이 련이어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4.25, 만경봉, 소백수, 리명수, 압록강, 평양, 기관차, 경공업성체육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최상급 남, 녀축구팀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게 된다. 특히 지난해 1부류팀들의 국내축구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룡남산남자축구팀, 봉화산녀자축구팀이 올해의 최상급축구련맹전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주목을 끌고있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와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에서는 최상급축구팀들의 련맹전과 함께 각지에서 여러 부류 축구팀들의 경기와 실내축구경기들도 벌어지게 된다.

5월과 6월에는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 축구경기가, 9월과 10월에는 청년선수권대회 축구경기가 진행되며 이밖에도 여러 부류 축구팀들의 기술혁신경기들과 지역별축구경기들도 벌어져 각지 감독, 선수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기술발전열의를 북돋아주게 된다.

우수한 최상급축구팀들사이에 진행되는 11월의 강팀경기가 매우 볼만 할것으로 예견된다.

나라의 축구선수후비들로 튼튼히 자라고있는 각지 청소년체육학교 학생들이 8월에 진행하는 경기도 주목을 끌게 될것이다.

올해에 벌어지는 국내축구경기들은 우리 식의 축구기술과 전술체계를 부단히 완성하며 주체경기전법의 체현자들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분발해나선 우리 체육인들의 심장에 더욱 불을 달아주고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떠밀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룡강일대에서 고구려벽화무덤 또 발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들이 룡강일대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발견하였다.

지난 시기 쌍기둥무덤, 룡강큰무덤, 황룡산성 등 고구려의 유적이 많은것으로 알려진 이 일대에서 벽화의 내용과 형식이 우수한 무덤이 또다시 발굴고증되여 학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무덤은 룡강군 옥도리소재지의 낮은 언덕에서 발굴하였으며 4세기말~5세기초의것으로 확인되였다.

북남으로 길게 놓인 돌칸흙무덤은 안길, 앞칸, 그 좌우벽에 벽장처럼 움푹 들어간 감실과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져있다.

현재 남아있는 길이 2.85m, 너비 2.83m, 높이 2.28m의 안칸은 벽모서리마다 기둥과 두공, 도리를 장식하여 마치 지상건축물처럼 꾸려져있다.

특히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벽화가 이채를 띠고있다.

북쪽벽에 있는 벽화에는 휘장을 걷어올린 장방안에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남녀인물과 시중군들이 그려져 무덤주인공의 실내생활을 반영하고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볼수 있는 7명의 남녀와 춤을 추는 9명의 무용수들을 형상한 동쪽벽의 우아한 그림은 당시 고구려가무예술의 특징과 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서쪽벽에는 사냥그림이 있고 벽체들의 웃부분에 화려한 무늬들이 그려져있다.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은 우수한 건축술과 회화술, 당시의 풍습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서 고구려문화연구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떠나갔다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26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올해에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업기술적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지대적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기초적인 문제이며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입니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농업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올해에 예견되는 기상조건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올해에 우리 나라 기온은 봄철과 여름철에 평년정도이거나 약간 낮고 가을철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으며 강수량은 봄철에 평년보다 약간 적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평년보다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재해성현상으로는 3월에 대부분 지방에서 저온현상이, 4월에는 가물현상이 예견되며 7월에 일부 지역들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동해안지방에서 7~8월에 랭한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한 주요농작물비배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논벼농사에서는 논의 지력을 높이고 벼모를 튼튼히 키우며 화학비료의 효과성을 높여 평당 이삭수와 이삭당 여문 알수를 확보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우선 질좋은 퇴비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내고 씨앗소독과 모판관리를 규정대로 하며 원그루논벼의 모내기를 제때에 끝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내기에서는 출발대수를 늘이고 평당 이삭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심는 밀도를 잘 선정하여야 한다. 정보당 질소비료시비량이 적은 경우에는 평당 이삭수를 안전하게 확보할수 있도록 심는 밀도를 늘여야 소출을 더욱 높일수 있다. 이삭당 여문알수를 늘일수 있도록 질소,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들을 구색이 맞게 주어야 한다.

뿌리썩는 현상, 추락현상이 심한 논에서는 뿌리기능을 높여주는 이랑 또는 두둑식재배방법을 적용하여 생육후반기 여물기기능을 높여주어야 한다.

앞그루감자와 봄밀보리에 의한 논두벌농사면적을 늘이며 그에 맞게 종자준비와 적지선정을 잘하여야 한다.

동해안지대에서는 여름철랭해현상을 예견하여 그를 막기 위한 품종선택, 생육후반기 깊은 논물대기방법, 비료주기대책을 미리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봄철가물피해와 장마철습해를 막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강냉이영양단지모기르기를 잘하고 강냉이의 초기생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강냉이밭 땅다루기를 잘하여 가물과 파습피해를 막아야 한다.

가을갈이를 한 경우에는 이른봄에 얼음써레를 치고 이랑짓기를 하며 가을갈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땅이 녹아 감이 들면 인차 봄갈이를 하고 이랑짓기를 하여야 한다. 봄철에 이랑을 지은 다음 바자써레를 치지 않은 밭에서는 바자써레를 친 밭에 비하여 정보당 하루 토양물기증발로 인한 물손실량이 100㎥이상 된다.

가을밀보리농사에서는 되살이률을 높이고 평당 이삭수와 이삭당 알수를 늘이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른 봄철 가물을 예견하여 밀보리밭다져주기와 되살이비료주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논에서는 3월에 낮은 온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대책을 바로세우며 밭에서는 되살이후 물주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봄밀보리농사에서는 종자준비를 잘하고 싹나온률을 높여 평당 이삭수를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해당 지대에서 씨뿌리기는 씨앗이 묻히는 깊이의 토양온도가 1~3℃되는 시기에 하여야 한다.

콩농사에서는 장마철폭우와 비바람에 의하여 콩이 넘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들춰갈이와 두둑짓기, 높은북주기 등을 잘하여 습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앞그루감자생육을 앞당기며 가을감자밭적지를 바로 정하고 다음해 심을 감자종자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올해농사를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잘 짓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농업과학원 원사, 교수, 박사 신용길

지열과 그 리용

지열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현시기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지열은 땅속깊은 곳에 매장되여있거나 지구내부로부터 땅겉면으로 저절로 흘러나오는 열에네르기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내부에는 이미 3.5×10^{31}J의 에네르기가 축적되여있으며 지금도 부단히 축적되고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땅속에도 막대한 량의 지열이 축적되여있다. 북반부지역의 땅속 3 000m깊이에 축적되여있는 지열에네르기는 3.642×10^{22}J이며 표준연료로 환산하면 1.243×10^{12}t에 달한다.

지열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긴장한 에네르기문제를 푸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천, 지하수, 지열탐사를 적극 벌려 지하수와 지열자원을 다 찾아내여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지열이 에네르기자원으로 리용되기 시작한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

지열이 개발되던 첫 시기에는 좁고 얕은 곳에 집중되여있어 쉽게 개발리용할수 있는 천연증기와 같은것만을 지열자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열에네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열자원에 대한 개념은 점점 더 넓어지고있다.

지열자원은 크게 류체지열자원과 암석지열자원으로 갈라본다.

류체지열자원에는 천연증기나 고온열수와 같은 화산성지열자원과 큰 퇴적분지들에 매장되여있는 거대한 량의 지하수와 같이 지열을 받아 온도가 100℃미만인 지열수 그리고 그 량은 적지만 지구겉면의 물이 단층이나 파쇄대를 따라 깊이 스며드는 과정에 지열을 받아 지열수로 되여 땅겉면으로 저절로 나오는 온천과 같은것들이 속한다.

전체 지열자원가운데서 류체지열자원은 20~3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지열에네르기는 마른 심부암석층에 축적되여있는데 이것이 바로 암석지열자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온암체로부터 저온암체에 이르기까지 암석지열에 대한 개발기술이 널리 연구되고있다.

현재 전망이 큰 지열채취법으로 인정되고있는것은 시추기로 여러 구멍을 뚫고 수력파렬법으로 추공들사이를 관통시킨 다음 한구멍으로 찬물을 쏘아넣어 파렬된 암석층을 통과시키면서 지열에 의하여 가열된 증기 또는 지열수를 다른 구멍으로 뽑아쓰는 방식이다. 류체지열자원을 개발할 때보다 투자가 많이 든다. 최근에는 암장가까이에 시추구멍을 뚫고 물을 쏘아넣어 증기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에 효률이 높은 열뽐프가 개발되면서 이전에 쓸모가 없다고 보던 10~15℃되는 낮은 온도의 지열에네르기를 건물의 랭난방에 리용하는 새로운 지열응용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열뽐프는 준위가 낮은 열원으로부터 높은 열원에로 열에네르기를 이동시키는 장치로서 땅속의 온도가 낮은 열원과 결합하여 온도를 높일 때에는 지열뽐프라고 한다.

이 뽐프를 리용하면 온도가 10~15℃정도 되는 지하수 또는 얕은 깊이의 지열을 뽑아 건물의 랭난방을 실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에서는 지하수를 리용한 공기조화체계를 완성하여 넓은 부지의 공장건물을 에네르기절약형건물로 전환시켰다.

지열뽐프로는 12~14℃정도의 지하수로부터 20~45℃까지의 송풍온도를 보장한다.

지하열교환기를 리용하여 얕은 층의 지열을 채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시추할수 있는 공지가 있으면 어디서나 도입할수 있으나 지하수를 쓸 때보다 투자가 더 든다.

공해가 적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원천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전망성있는 에네르기자원으로 평가되고있는 지열에네르기는 전력생산부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있으며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난방에도 적극 리용되고있다.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박사 김종희

2면에서 계속

그들은 우리 당의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석탄과 광물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드세찬 생산돌격전을 벌려나가며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갈것을 다짐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정치부장 김상민, 희천발전소건설평안북도려단 초급청년동맹비서 김성일, 8.28청년돌격대관리국 려단장 김명룡, 황해북도속도전청년돌격대 려단장 윤호남은 온 나라에 일떠선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청년들의 위훈이 깃들어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모든것을 바칠 의지를 지니고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청년동맹1비서 김상성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온 나라의 대경사인 주체비날론폭포가 쏟아져내리게 하는데서 청년들이 한몫을 한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당이 부르는 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여가려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자 공명남,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전선에 진출하여 대고조시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다짐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학생 정수림,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받들고 청산리에 뿌리내릴것을 결심한 평양장원중학교 학생 김총순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 조혜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량동철은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더 많은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하며 높은 실력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를 위한 일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강령군인민들의 소행은 온 나라에 원군열기를 북돋아주었다고 하면서 강령군 부포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비서 안정환은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양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평양방직공장 직장장 로력영웅 리명옥은 청년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승리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모두가 청년영웅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서사시를 수놓아가고있는 청년전위들의 열정과 기백이 넘쳐나는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여 축하시를 랑송하였다.

대회에서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는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청년전위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은 《강화도조약》의 조작으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예속화의 문을 열어놓은 침략의 원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론고장

지금으로부터 135년전인 1876년에 일본침략자들은 유미렬강에 앞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를 조작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이 군사적위협과 공갈, 기만과 협잡의 방법으로 조작한 《강화도조약》은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본통치층의 모략의 산물로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금후 조선에 대한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과 식민지각축전을 유발시킨 첫 불평등조약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과거 일본에 의한 《강화도조약》조작 135년을 맞으며 일본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강화도조약》조작책동의 진상과 그 후과를 온 세상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론고장을 발표한다.

1

《강화도조약》은 명치유신후 호전적인 일본반동지배층이 들고나온 《무력에 의한 조선정복론》, 날강도적인 《정한외교》정책의 범죄적인 산물로서 그 직접적인 조작구실로 리용된것은 1875년의 《운양》호사건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본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1876년에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를 예속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중엽 일본이 명치유신으로써 개화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실시한 대조선정책은 《정한외교》정책이였다. 이것은 조일간의 새로운 《국교재개》협상을 요구하는 불순한 외교문서(서계)를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침략적도발을 걸어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조선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침략정책이였다.

바로 이러한 강도적인 《정한외교》정책에 따라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에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다.

《운양》호사건은 1875년 9월 일본군함 《운양》호가 항행도중 먹는물을 얻는다는 명색밑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지어 일본국기도 게양하지 않고 조선의 령해인 강화도 초지진앞바다에 불법침범하였다가 조선군사들의 자위적포사격을 받은 사건이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도발한 모략사건이였다. 이에 대하여 륙군대장 야마가다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장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는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으며 참의 기도는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미전부터의 목적을 단숨에 달성하려고 하였다.》고 토설하였다. (《공작 야마가다 아리또모》중, 412~413페지, 《기도일기》 명치 8년 12월 7일)

그러나 《운양》호사건의 진상이 내외에 알려지고 저들의 범죄적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일본정부는 그해 11월 《정한외교》정책의 변종인 《평화협상외교》정책을 내놓고 리조봉건정부에 예속적인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이른바 방안이라는것을 꾸미였다.

그 방안이란 첫째로, 《운양》호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워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것이였다.

태정대신 산죠가 조선측과의 회담에 파견되는 일본전권대신 구로다 기요다까에게 준 《훈령》(총 7개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일문, 423~424페지)

산죠는 이 《훈령》이라는데서 《운양》호사건의 책임을 조선측에 무조건 전가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과 다른 한 곳을 개항지로 정하고 일본인의 자유래왕과 령사관의 설치를 보장하며 일본배의 조선령해측량과 항행의 자유 및 례조판서급의 대우를 받는 일본사신의 한성체류 등의 강도적요구를 조약문에 반영할것을 지시하였다.

끝으로 《훈령》은 회담시 리조정부가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러저러한 정황이 조성될 경우 사태정황을 본국에 알리며 차후 정부의 명령을 기다려 행동할것을 지시하였다. (《일성록》 병자년 정월 4일)

이것은 청나라측의 있을수 있는 간섭을 타산한것이였다.

일본정부가 꾸민 방안은 둘째로, 군사적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측을 강박하고 《굴복》시킨다는것이였다.

총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것은 사무라이족속들의 포악성과 호전성을 그대로 체현한 일본침략자들의 고유한 기질이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평화협상외교》정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려는 강도적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폭력적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일본의 책동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뒤받침하에 더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이미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국은 일본을 길잡이로 내세워 저들의 조선침략야욕을 손쉽게 달성해보려는 음흉한 속심밑에 《운양》호사건이후 일본의 대조선침략책동을 각방으로 도와나섰다. 당시의 주일미국공사 벵햄은 일본의 조선침략에 《지극히 동의한다.》고 떠벌이며 1871년 《신미양요》때 《실패한 미국의 옛뜻인 조선개방을 일본이 이어나갈것》을 충동질하였으며 1875년 12월 일본외무경 데라지마와의 면담시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를 쥐여주면서 조선의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포함외교를 적용할것을 권고하기까지 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8권, 일문, 152~155페지)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청국과 유미 각국의 공사들에게 조선에 파견하는 일본전권대신의 임무는 회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화친》을 도모하는것이라고 요란하게 선전하였으며 지어 대조선《화평교섭》에 대한 외국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번에 조선에 파견하는 전권대신은 륙군병을 절대로 인솔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증》한다 (《근대일선관계의 연구》상권, 437페지)고 떠벌이였다. 그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하고 웨치며 자기 정체를 감추는 격이였다.

결국 일본은 조선을 군사적폭력의 방법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강도적책략과 미국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그해말 조선에 일본전권대표일행을 파견하게 되였던것이다.

2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서라도 기어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일본반동지배층의 야심은 그후 조선봉건정부와의 협상과정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일본전권대표단을 실은 일본함대의 강화도해협에로의 항행을 허용할데 대한 외교협상을 계기로 일본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강화도조약》조작책동은 직접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1875년 11월말 일본외무경 데라지마는 부산에 파견되는 외무성리사관 히로쯔에게 일본전권대표를 조선에 파견한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조선측 관리에게 전달할것을 지시하면서 조선측이 저들의 문서를 접수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일단 통고할것을 명령하였다.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일문, 429페지)

이에 따라 히로쯔는 12월 17일 부산에 도착하여 19일 부산왜관에 온 왜학훈도 현석운에게 외교문서를 전달하였다.

현석운이 문서를 보내온 리유를 따지자 히로쯔는 군함 《운양》호가 청국의 우장으로 항행하던 도중 포격을 받았고 일본조정이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명전권대신 구로다를 사신으로 파견하니 조선측에서 그들을 보호해줄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만약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성에 쳐들어갈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조선교제시말》 3월,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일문, 430페지)

이러한 날강도적인 망발은 《운양》호사건의 책임을 조선측에 무작정 넘겨씌우며 군사적수단을 배경으로 리조봉건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당시 리조정부는 될수록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타산밑에 현석운으로 하여금 《명치유신》이후 일본정부가 여러번 제기하여오던 《국교재개》협상안을 재접수하는데 대한 일본함대의 강화도항행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히로쯔와 흥정하게 하였다.

이때 히로쯔는 강화도해협에로의 항행을 중지시키는 문제는 이제 곧 돌아가 본국과 합의하여 확답을 주겠으니 외교문서를 필사본이라도 동래부에 형식상 전달해줄것을 제기하였다.

히로쯔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현석운은 외교문서의 필사본을 접수하고말았다.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일문, 431페지)

외교문서필사본의 접수로써 강화도해협에로 항행하여 리조정부와 공식회담을 벌릴수 있는 합법적인 구실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 일본은 1876년 1월초 구로다를 전권대표로 하여 30여명으로 이루어진 전권대표단과 800명의 병력을 실은 6척의 일본함선들을 파견하였다. (《고종실록》 제13권, 13년 1월 4일, 《외교자료집성》 1, 343~346페지)

일본침략함대는 조선령해에 대한 측량과 무력시위를 벌리면서 2월 4일 강화도 초지진앞바다에 기여들었다.

통보를 받은 리조정부는 다음날 판중추부사 신헌과 례조상서 윤자승에게 강화부로 내려가서 일본측과 담판할것을 지시하였다.

2월 5일 리조정부대표와 일본정부대표사이의 예비담판에서 접견대판으로 임명된 신헌은 담당역관을 일본함대가 현재 정박하고있는 초지진에 파견하겠으니 일본측 대표가 멀리 강화부에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잘라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일방적으로 회담장소를 강화부 관청건물로 하며 전권대표들과 수행원, 의장병들의 숙소를 제공할것을 강요해나섰다.

이에 대하여 신헌은 국법에 따라 지방관청을 외교담판장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공식대표 및 수행원외에 불필요한 인원은 상륙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그러자 일본측은 저들의 병력수를 4 000명으로 과장하면서 숙소문제가 곤난하면 400명이라도 상륙시켜야 하겠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이제 곧 2 000명의 병력이 추가되여올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일문, 450페지)

이것은 조선대표를 얕보고 위협과 속임수로 업어넘기려는 서투른 잔꾀에 불과한것으로서 조선측 대표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그리하여 담판장은 치렬한 론쟁마당으로 변했으나 국력이 약했던 리조정부의 나약성으로 말미암아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요구를 끝내 물리치지 못하고 일본함대의 강화도침입과 인원상륙을 묵인하고말았다.

2월 10일 초지진앞바다로부터 기동하기 시작한 일본침략함대가 갑곶진에 이르러 《례포》의 명색밑에 대포를 사방 쏘아대며 화약내를 마구 풍기는 가운데 구로다는 수행원들과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하였다. 다음날 강화부 서대문안의 련무당에서 열린 회담전야에도 일본침략자들은 《기원절》(《건국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함포를 쏴대여 회담장을 공포분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은 회담 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첫날 회담에서 일본측 대표들은 《명치유신》이후에 저들이 들고나온 《국교재개》협상을 거절한 《책임》과 《운양》호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조선측에 넘겨씌우면서 그 무슨 《사죄문》까지 요구해나섰다. 일종의 압력을 가하여 조약문토의에서 손쉽게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접견대판 신헌은 사리를 따져가면서 공박하였으나 강도적인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회담장에 나온 왜적들에게 그 어떤 리치나 사리가 통할리 만무하였다.

왜적들이 《운양》호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를 들고나와 막무가내로 으름장을 놓고있을 때 리조정부는 대신회의를 열고 회담의 전도를 우려했을뿐이며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강경히 맞서 대항할 생각은 못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간교한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조선측 대표들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지 못하고있는 약점을 리용하여 일본침략자들은 불평등조약체결을 위한 토의시 외교대표부와 개항지설치문제 등 주요의제와 관련한 조선측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버리거나 문구의 약간한 수정이나 구두합의의 교묘한 방법으로 어물쩍해버리였다. 조선측이 제시한 《금칙 6개 조》를 조약원문에 규정할것을 요구하자 일본측이 그것을 구두합의로만 보고 끝내 조약원문에 기재하지 않고 부정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조약문토의가 일단 마무리된 2월 20일 일본측 대표들은 천만부당하게도 조선국왕의 서명이 있는 조약비준서를 또다시 요구해나섰다.

당시 조선봉건정부에서는 조약체결시 조약비준서에 《조선국왕어보》만을 찍게 되여있을뿐 국왕이 직접 수표하는 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전례에도 없는 국왕의 비준서수표를 요구하여나선것은 리조봉건정부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란폭한 침해행위였다.

접견대판 신헌은 조선국왕의 비준서서명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일본측이 저들의 요구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전권구로다는 조약비준서에 누를 《조선국왕어보》는 《친서》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비준서에 국왕이 수표할것을 고집하였다. 부전권 이노우에는 《서명한가지 문제로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할수 없다.》, 《당신들에게는 조일교역을 파기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데 비하면 어느것이 중요한가.》고 오만하게 떠벌이며 위협해나섰다. (《조선교제시말》 3권,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일문, 498페지)

2월 21일에는 조약비준형식을 끝까지 접수하지 않는 경우 자기들은 회담을 중지하고 귀국할것이라는것, 그렇게 되는 경우 두 나라간의 평화를 유지하는것은 어려워질것이라는 통고문까지 보내여왔다.

접견대판 신헌은 이것은 한갖 조선측을 놀래우기 위한 서투른 연극이라고 치부하고 배심좋게 일본측의 통고문을 무시해버렸다.

여기에 더욱 등이 단 구로다는 22일 사환군을 시켜 조선측 대표에게 본국으로 되돌아가겠는데 5일간의 기한을 주겠으니 잘 토의하여 답변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여왔으며 일부 성원만 남기고 강화부를 철수하였다. (《조선교제시말》 3권,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501페지)

하지만 신헌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측이 한갖 비준형식과 관련하여 계속 고집해나서는 경우 조약체결자체가 위태로와질것이며 구로다자신도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간파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한편 사태가 점점 저들에게 불리하게 변해지자 강화부를 철퇴한 구로다는 저들의 체면을 세우는 동시에 그 타개책을 찾기 위해 조선측 대표와 막후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조선측 대표들로부터 도저히 양보를 받을수 없게 되자 일본측 대표들은 2월 22일 저들의 불순한 제안을 부득불 철회하고 조선측이 제시한 절충안인 조선국왕이 직접 수표를 하지 않는 대신 국왕의 이름이 찍힌 《조선국주상의보》를 새로 만들어 비준서에 찍는데 동의하였다.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 일문, 502페지)

리조정부는 《운양》호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의정부조회문》을 일본측에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여 1876년 2월 26일 구로다일당은 강화부에서 다시 조선측 대표와 만나 조약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2월 27일(음력 2월 3일)에는 12개 조항으로 된 《조일수호조규》 2부에 량측 대표가 각각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비준하였다. (《고종실록》 제13권, 13년 2월 3일, 《근대일선관계의 연구》상권, 일문, 503페지)

이처럼 《강화도조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침략자들의 횡포한 군사적위협공갈과 간교한 권모술수에 의하여 강압체결된 불평등조약이였다.

3

《강화도조약》은 일본측에는 조선침략의 온갖 유리한 조건과 특권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예속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으며 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침해하고 조선에 대한 유미자본주의렬강의 대대적인 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범죄적인 조약이였다.

《강화도조약》은 우선 일본침략자들이 장차 조선침략에서 저들의 유리한 특권적지위와 권리를 마구 규정해놓음으로써 조선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지배실현에 유리한 길을 열어놓은 범죄적인 조약이였다.

이 조약에서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로서 일본과 평등권을 보유한다》(1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주》, 《평등》의 귀맛좋은 말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교묘하게 위장하였으며 당시 조선에서 자기의 세력지반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와 다른 렬강들을 밀어내고 독점적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조약에서는 또한 조선의 부산을 개항지로 설정하며 앞으로 2개 항을 개항지로 선정한다는것을 규제하고 개항지들에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자유로운 무관세무역을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4조, 5조, 9조, 11조)함으로써 일본자본의 자유로운 침투의 길을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조약을 통하여 일본군함과 상선 등 모든 일본배의 조선령해에서의 자유항행권과 해역측량 및 지도작성권(7조)을 강탈하였으며 개항지에 일본상인을 《보호》하는 관리(령사)를 두며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보장하고 일본인범죄자들에 대한 재판권을 일본관리에게만 부여한다는것을 조약문에 명기(8조, 10조)함으로써 저들의 무제한한 침략적, 략탈적행위를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약내용이 보여주는것처럼 《강화도조약》은 자유무역권, 연해자유항행권 및 측량권, 치외법권, 령사주둔권, 보충조약체결권 등 일본침략자들에게 일방적인 특권만을 준 반면에 조선인민들에게는 예속적인 의무만을 들씌운 불평등한 조약이였다. 하기에 일본인들자신도 《조약은 조선에서의 일본정부 및 국민의 권익을 규정한것에 그치고 일본에서의 조선정부 및 인민의 권익은 규정하지 않았다. 일본안의 조선인의 생명재산과 같은것은 오직 일본인의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배되여야 하는 운명에 있었다.》(《조선개국외교사연구》일문, 236페지)고 자인하였다.

《강화도조약》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은 리조봉건정부로부터 방대한 식민지적리권을 강탈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야망실현의 지반을 구축할수 있었으며 결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점차 전락되여가게 되였다.

《강화도조약》의 범죄성은 또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오던 유미렬강의 대대적인 조선침략을 유발시켜 조선을 자본주의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직후 외래침략자들가운데서 조선침략의 선두에 나선 나라는 미국이였다.

미국지배층속에서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강화도조약에 의해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할수 있게 되였다.》(《조선개국외교사연구》일문, 282페지)고 환성을 올리였다.

그후 이런 타산은 미상원 해군분과위원회 위원장 아론 싸젠트가 미국회에 제출한 결의안에 반영되였으며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여 1878년 12월 《조선개국안》에 따라 해군제독 슈펠트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다.

슈펠트는 일본정부의 안내를 받아 리조정부와 조미조약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리조정부의 강한 반미자세로 말미암아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되자 청나라를 리용하여 조미조약협상을 실현하고 1882년에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조미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미조약》은 청나라의 개입밑에 유럽렬강들의 조선침략의 명분과 침략적조약내용의 기틀을 규제하고 조선침략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일본에 의하여 《강화도조약》이 강요된 이후 영국, 도이췰란드, 프랑스, 짜리로씨야 등 유럽렬강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 저마끔 불평등조약을 리조정부에 강요해나섰다.

《조미조약》이 체결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된 영국은 청나라와의 협조밑에 1882년 4월 《평화》와 《우의》의 명목으로 해군제독 윌리스가 이끄는 군함 《비질랜드》호를 인천에 들이밀었다.

리조정부와의 회담에서는 쌍방사이에 일련의 의견들이 교환되였지만 결국 리조정부의 굴종적외교로 하여 강압체결되고 1883년 10월 불평등한 《조영수호조약》(11개 조항)이 비준되였다. 조약체결로 리조국가의 자주권은 영국침략자들에 의해서도 침해당하게 되였다.

《조영수호조약》의 체결에 이어 도이췰란드가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위하여 상해에서 슈펠트와 만나 조약내용을 론하고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 《조미조약》과 같은 조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에서 리조정부와 회담을 벌려 1883년 10월 《조도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였다. 조약은 선행한 협약들과 같이 침략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었다.

1882년 《조미조약》이 체결되고 조영, 조도사이에 조약교섭이 시작되자 그해 4월 프랑스령사 딜론이 청나라의 협조를 받고 리조정부와 조약교섭을 시작했으나 프랑스측이 카톨릭교의 포교를 내세움으로써 그 요청은 실현되지 못하고말았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투항주의적인 민가일당이 프랑스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여 1885년 5월에는 《조프조약》이 체결조인되였다. 조약내용은 역시 유미렬강과 맺은 조약과 같았으나 차이점은 조약에 《교화》라는 두글자를 삽입함으로써 프랑스를 비롯한 유미렬강의 카톨릭교의 포교의 자유를 합법화할수 있는 구실로 되였다.

짜리로씨야는 1884년 청—프전쟁을 계기로 천진주재 로씨야령사 웨베르를 전권대표로 한성에 파견하여 리조정부와 조로조약협상을 하게 하였으며 1884년 윤5월에는 13개 조로 된 예속적인 《조로조약》이 강압체결되였다. 조약은 로씨야측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였다. 이로 하여 그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은 심히 침해당하게 되였으며 로씨야의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리권략탈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 민족적위기가 더욱 심화되였다.

《강화도조약》조작은 교활하고 악랄한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한 지울수 없는 침략행적이고 우리 나라를 유미자본주의침략세력의 쟁탈지로 떠밀어놓은 만고대죄이다.

오늘날 일본반동들은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대신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대조선재침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실로 무분별하게 행동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교훈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이다.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수 없다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새겨안은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밑에 100년숙적 일본의 과거죄행을 총결산할것이며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주체100(2011)년 2월 26일 평양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와 보람

해주시사회급양관리소 남산식당 책임자 심재화동무와 종업원들

해주시 남산식당으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식당이 오늘처럼 민족음식을 잘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데는 이곳 봉사자들의 헌신적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음식을 발전시키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면서 새로운 료리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곳 식당의 종업원들은 민족료리발전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마다 특색있는 료리라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는 닭고기음식에는 심재화동무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료리사자격을 받던 날 심재화동무는 인민의 봉사자로 한생을 빛내일 결심을 다지였다. 그는 료리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수많은 참고서들을 보고 여러 단위들을 찾아가 료리방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특히 민족음식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그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다 바치였다. 찜료리만이 아니다. 심재화동무는 일단 어떠한 민족음식이든 만들기로 결심하면 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최근년간에 진행된 료리경연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재화동무의 재치있고 세련된 료리솜씨는 그가 지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낳은 귀중한 열매였다. 지난해에 진행한 전국료리경연에 출품시킨 낙지졸임과 새우순대가 높이 평가된것이 그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긍지야말로 우리 료리사들이 지녀야 할 첫째가는 풍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애국의 마음이 우리 민족료리를 료리중의 료리로 빛내일수 있게 하는 비결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심재화동무이기에 이곳 료리사들과 종업원들모두가 그를 따르며 존경하고있다.

이곳 료리사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민족음식발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수천평의 빈땅을 찾아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있을뿐아니라 축산기지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그리고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적극 살아나는 민족음식을 많이 만들어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 시민들을 위한 사회급양봉사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우리가 연산군휴양각을 찾아 취재길에 나선것은 어둠이 깃들무렵이였다. 산으로 둘러막힌 골짜기의 도로를 따라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상쾌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가는 어둠때문에 휴양각을 째찾을수 있을가 하는 걱정이 생겼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생각이였다. 골짜기에 불야경을 이룬 2층으로 된 휴양각이 한눈에 안겨왔던것이다.

연산군민발전소가 건설되여 그 덕을 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홀에 들어섰다. 넓은 홀을 대낮같이 밝혀주는 조명도 좋지만 자기 고장에 있는 돌들을 박아 여러가지 꽃들을 형상한 바닥은 꽃주단을 펴놓은듯 하여 볼수록 희한하였다.

우리는 먼저 휴양생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잘 꾸려진 호실들을 돌아보았다. 전기난방화되여 한겨울에도 뜨뜻한 온돌방, 포근한 침대와 탁상등이 환한 책상 등은 볼수록 흐뭇하였다.

휴양생들이 보이지 않아 동행한 휴양각일군에게 물었더니 지금이 식사시간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호기심이 동하여 식당에 들려보았다. 먹음직스러운 오곡밥에 풍성한 반찬을 마주한 휴양생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우리와 만난 휴양생인 대산협동농장 분조장은 며칠사이에 휴양생들의 몸무게가 늘어나고 더 젊어졌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휴양생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게 하려고 바쳐온 군책임일군들과 이곳 봉사자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지성을 두고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산간벽촌에 당의 은덕을 목청껏 노래하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의 웨침이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지고있습니다.》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는 방들을 보며 휴양각일군이 흥분에 넘쳐 하는 말이였다.

참으로 휴양각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솟아난 사랑의 집, 행복의 요람이였다. 하늘같은 그 사랑, 그 은덕을 심장에 새겨안고 쌀로써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나가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이 되겠다고 결의하는 휴양생들의 모습은 감동없이는 볼수 없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하지만 휴양각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휴양생들모두는 잠들줄 몰랐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방문기

산촌에 울려퍼지는 행복의 노래

연산군휴양각을 돌아보고

만민이 칭송하며 따르는 걸출한 령도자

경 축 집 회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단마르크, 남아프리카, 프랑스에서 14일과 15일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들에는 단마르크공산당,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현대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경이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2000년과 2007년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력사적인 선언들이 채택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끼리라고 믿는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프레토리아시 마홀람반들로피지부 위원장 데이비드 마호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계승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에 강력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신다.

오로지 인민의 복리를 위해 애국애민의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는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대표위원장 앙드레 오브리는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분이시다.

그이는 또한 세계반제자주력량에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우리는 김정일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2.16경축집회가 파키스탄 카라치, 남아프리카 요한네스부르그, 벌가리아 쏘피아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파키스탄민족당, 인민당, 신드주정부와 의회,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청년동맹,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의 인사들과 군중이 집회들에 참가하였다.

파키스탄 신드주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실것을 축원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자주적평화통일, 세계평화와 자주화를 위한 고귀한 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자주적대가 강한 국가지도자로서 만민의 한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시라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청년동맹 국제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다.

그이의 불면불휴의 령도가 있어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누리에 존엄떨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반도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계신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인민만이 아니라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다.

담 화 발 표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스왈도 뻬쉐가 1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기때문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총대로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실 의지를 안으시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쓸어버릴수 있는 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조선인민은 자주강국, 군사강국의 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칠수 있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공고해지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김정일령도자를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전체 인민의 신뢰심을 다시한번 세계에 시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본사기자

남남협조와 집단적자력갱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호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남남협조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운동이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새 사회건설에서 일련의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현 국제경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있는 지위를 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략탈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원과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는 서방나라들에 헐값으로 흘러들어가고있다. 서방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빈부의 차이는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은 풍부한 자원과 새 사회건설에서 얻은 여러가지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이 나라들의 인적, 경제기술적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이 모든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남남협조를 보다 확대발전시키고 공동의 번영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기의 기술과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매개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기 위해 민족적범위에서뿐아니라 국제적범위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할 때 서방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주성과 련대성의 정신에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은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할 오늘의 현실에도 맞으며 공동의 번영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인민들의 념원과 요구에도 부합된다.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호상 협력하고 교류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서방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외세의존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길이다.

집단적자력갱생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의 생명선이며 남남협조의 근본조건이고 추동력이다.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과 단결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집단적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호 금 도 총 서 기 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해 언급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집체학습을 사회하면서 한 연설에서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교육의 우선적인 발전과 인력자원강국건설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잘 조화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들이 교육발전을 중요한 사업일정에 포함시키고 교육의 과학적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착실히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불순한 기도를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2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영구주둔하기 위해 이 나라 당국과 그 무슨 전략적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인민이 경각성을 높여 미국의 시도를 철저히 분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판관》으로 둔갑한 범죄자

이스라엘당국이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해 제스스로 《재판관》노릇을 하고있어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스라엘의 한 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유엔조사단에 제출한 300페지짜리 보고서라는데서 지난해에 있은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해군의 군사적공격이 《합법적인것》으로 판명되였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이 가자지대에 대한 저들의 봉쇄정책을 《무시》하고 이 지대로 향하였으며 이스라엘해군은 원조선단에 있던 국제련대성활동가들의 공격을 먼저 받고 자위권을 발동하였기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생억지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5월 31일 이스라엘해군은 인도주의원조물자를 싣고 가자지대로 가던 평화적선박들에 백주에 군사적공격을 가하여 19명의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3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6척의 선박과 40여개 나라의 700여명의 련대성활동가전원을 나포하여 이스라엘항구로 끌고갔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은 세계적인 규탄과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 단체들이 이를 란폭한 국제법침해행위로, 또 하나의 대량살륙전으로 락인, 단죄하였다.

당시 유엔인권리사회도 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반인륜적범죄행위로 락인하고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당장 해제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독자적인 조사단을 무어 파견하기로 결정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제딴의 그 무슨 조사놀음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뻔뻔스럽게 행동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철면피한 처사는 팔레스티나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배격에 부딪치고있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조사결과를 절대로 접수할수 없으며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에 대해 조사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규탄하였다.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항쟁운동 (하마스) 은 《범죄자가 재판관으로 행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뛰르끼예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주장은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신빙성과 합법성이 없는것으로서 외교적분쟁만을 더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나라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공격만행은 명백히 무력행사이고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이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한것은 그야말로 경악스럽고 아연실색케 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자루속의 송곳을 감출수 없듯이 이스라엘당국은 그 어떤 권모술수로써도 원조선단을 무력으로 공격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유태복고주의정권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성근히 반성하고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당장 철회하며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적노력들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싸이버범죄 성행

영국에서 싸이버범죄가 성행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싸이버범죄로 한해동안에 입는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270억£에 달하고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에네르기절약사업, 전력문제해결조치, 토지정리사업

— 중국에서 에네르기절약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국가의 조치에 따라 중앙과 지방, 기업소들에서 제11차 5개년계획기간 이 사업을 통해 약 3억 4 000만t의 석탄과 맞먹는 에네르기를 절약할수 있는 능력을 조성하였다. 이 기간 전국각지에서 보이라를 개조하고 절약등을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였다.

— 중국 호북성에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압송전선늘이기공사를 진행하고있다. 공사는 올해말까지 진행되게 된다. 공사가 완공되면 화중지역에 대한 전력공급능력이 500만kW 더 늘어나게 된다.

—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제11차 5개년계획기간 토지정리사업을 통해 120만무의 부침땅을 새로 얻어냈다. 그리하여 자치구의 부침땅면적은 7 685만무로 늘어났다.

수력발전소 및 관개시설건설 계획

필리핀에서 이싸벨라주에 발전능력이 10만kW에 달하는 수력발전소와 4만 1 700ha의 농경지에 물을 댈수 있는 관개시설을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23일 이 나라 정부가 공사에 필요한 자금지출안을 승인하였다.

문맹퇴치사업

뻬루정부가 문맹퇴치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현재 문맹률은 7%로 감소되였는데 정부는 2015년말까지 그것을 4%로 줄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 나라 대통령 알란 가르씨아 뻬레스는 사회의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 민족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고 하면서 문맹퇴치사업을 더욱 다그칠 립장을 천명하였다.

마약 압수

뻬루경찰이 19일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230kg의 코카인이 압수되고 14명의 마약밀수업자들이 체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군의 공격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군사적공격만행을 계속 감행하면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23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시에 포사격을 가함으로써 7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에게 부상을 입혔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북부지역에서 자갈채취를 하던 팔레스티나인로동자들에게 총질을 하여 그들의 생명안전을 심히 위협하였다.

항 의 시 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22일 당국의 그릇된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교원들의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은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채무위기를 해소한다는 명목밑에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계속 줄이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뉴질랜드에서 지진피해

일본의 야심적인 군사적기도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7호가 《일본은 어디로 가고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일본이 년초부터 군사훈련을 련속 벌리는 한편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서 발광적으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썼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아시아대륙에 대한 재침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이 미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상륙과 기습공격을 기본으로 하는 미해병대의 실전경험을 배우는 훈련을 진행하고 2011회계년도 예산에서 많은 자금을 《F—35》스텔스전투기에 대한 연구에 할당한데는 야심적인 군사적기도가 숨겨져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를 미국산 전투기들로 무장시키고 보다 현대화, 고도기술화하여 그 작전능력을 부쩍 높이며 동북아시아에서 공중우세를 차지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전략에서 불의적인 공중선제타격방식을 매우 중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의 고성능순시선개발움직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동아시아해역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파도가 높은 속에서도 항행할수 있고 야간에도 선박을 수색하거나 감시할수 있는 1 000t급고성능순시선 개발을 추구하고있다, 이러한 계획은 본질에 있어서 그 무슨 《수색》과 《감시》의 미명하에 해상작전무력을 보다 강화하여 군사적해외팽창목적실현에 써먹자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위대》의 《재외일본인수송》훈련과 경외에서의 상륙연습 등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재침준비를 완성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포성을 울리자는 속심에서이다라고 평하였다.

신문은 끝으로 일본은 군사대국화책동이 나라를 파국에로 몰아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해빛으로부터 에네르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최근 단백질을 해빛과 반응시켜 에네르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레몬산과 단백질을 혼합하고 여기에 금분말을 섞은 다음 그것을 병에 담아 약 20분동안 해빛을 받게 하면 촉수가 높은 전등을 켤수 있는 에네르기가 산생된다. 이 방법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록색에네르기원천을 얻을수 있게 한다.

【조선중앙통신】

월간국제정세개관

력사의 도전을 이겨내며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한다

2월이 끝나가고있다. 이해 2월은 겹쌓이는 력사의 도전들을 이겨내며 자주시대가 전진해나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이달에 식량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해 긴급히 풀어야 할 중요한 시대적과제이라는것이 부각되였다.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보다 악화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지난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가격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식량가격이 1990년이후 최고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 세계식량계획관계자는 《우리는 〈식량불확실성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국제시장들에서 강냉이, 밀, 콩 등의 가격이 높이 뛰여오르고있는데 지난 5일현재 1년전에 비해 강냉이가격은 87.68%, 밀, 콩가격은 각각 83.16%, 58.09% 올랐다.

세계은행도 2015년까지 곡물가격이 평균치보다 높아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세계은행 총재는 식량가격인상이 발전도상나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하였다.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가정들이 소득의 3분의 2를 식량구입에 지출하기때문에 식량가격상승은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있다고 한다.

국제시장들에서 식량가격이 뛰여오르고있는것은 주요하게 이상기후현상에 기인된다. 가물과 무더기비, 강추위 등이 미국, 오스트랄리아, 남아메리카, 로씨야, 중국 등 세계곡창지대를 덮치고있다.

중국의 하북성과 산동성 등 곡창지대에는 300년만에 처음보는 최악의 가물이 들이닥쳐 식량생산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콩수출국들로 알려진 아르헨띠나와 브라질, 강냉이, 밀의 주요생산지인 미국 중서부 등에서도 혹심한 가물이 계속되여 알곡생산량이 대폭 떨어지고있다. 이에 따라 식량수출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후와 풍부한 물, 값눅은 에네르기를 기초로 한 현 국제식량공급체계가 무너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적으로 심각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활발히 벌어졌다.

여러 나라들에서 이상기후현상을 극복하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취해졌다.

중국국무원은 전국식량생산 화상 및 전화회의를 소집하고 식량 및 농업생산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정책적조치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또한 지하수가 풍부한 남부지역의 물을 북부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송수관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세계최대규모의 삼협언제의 물을 가물지역으로 돌리는 등의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웠다.

국제적인 식량가격폭등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20개국농업상회의가 오는 6월에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서 개최되게 된다. 이 회의에서 식량가격억제대책과 투기자금감시문제 등이 토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달에 모순과 대립이 심화되는 대국들의 호상관계가 국제관계발전에 각이한 영향을 미쳤다.

중미, 중일관계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였다.

지난 1월 하순부터 2월 3일까지 일본의 규슈섬주변에서 《야마 사꾸라》라고 불리우는 미일합동군사연습이 크게 벌어졌다. 한 주일 미군장교는 언론에 이 합동군사연습이 규슈섬서쪽에 위치하고있는 큰 나라를 념두에 두고있다고 공개하였다. 규슈섬서쪽에 위치한 큰 나라는 다름아닌 중국이다. 그때 미국의 어느 한 대학부교수는 미국이 이번 미일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2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중국에 보복을 가할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확인시켜준다는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음력설전야에 인민해방군 제2포병부대의 한 려단이 중국서부의 한 고원지대에서 핵반격작전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동아시아와 그 주변정세에서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있는 때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무력의 한 부대가 핵반격작전훈련을 진행한것은 시기가 미묘하고 세계에 전달하는 정보가 각이하다고 군사정치분석가들이 평가하고있다.

로일령토분쟁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지난 4일 로씨야국방상이 남부꾸릴렬도에 주둔해있는 로씨야군의 한 사단을 시찰하였다. 이로써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가 로씨야인이라면 그가 누구든 찾아갈수 있는 자기 나라의 령토이라는것을 시위하였다. 그리고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이 로씨야에 먹어들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로씨야국방상의 남부꾸릴렬도방문을 불쾌하게 여기며 로씨야에 즉시 항의를 들이댔다. 그러나 일본의 그러한 항의는 별로 맥을 추지 못하는 맥빠진 행동으로 되여버렸다.

이미 올해초를 전후하여 남부꾸릴렬도를 대통령과 제1부수상, 국방성부상, 지역발전상 등 로씨야의 고위급인물들이 련이어 돌아보았다. 이때마다 일본은 로씨야에 항의를 들이대는 놀음을 벌렸었다.

저들의 항의가 로씨야에 먹어들지 않자 일본당국자들은 밸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지난 7일 일본수상 간 나오또가 《북방령토의 날》행사에 참가하여 연설하면서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을 《용서할수 없는 폭거》라고 공격해나섰다.

로씨야도 강경한 립장을 취하였다.

로씨야외무상은 로일관계가 긴장한 속에서 자기 나라를 행각한 일본외상에게 《일본이 다른 나라들처럼 제2차 세계대전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면서 남부꾸릴렬도가 명백히 로씨야령토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사태는 동북아시아지역과 국제정세에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여러 나라들이 이와 관련하여 경계심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달에 세계금융위기의 후과로 하여 미국과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사이의 관계가 깨여질 위험성이 생길수 있다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얼마전 나토사무총장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재정난에 빠진 유럽에서 국방비가 대폭 줄어들어 미국의 유럽리탈을 가속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 금융 및 경제위기로 하여 유럽나라들은 긴축을 하고있으며 국방비도 대폭 삭감하고있다.

유럽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리반소탕 등 전투작전은 미국이 맡고 유럽나라들은 인도주의 및 개발지원이나 치안부대훈련에 전념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이 불만스러워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의 국방비가 크게 삭감되는 경우 나토의 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다. 이로 하여 미국과 유럽사이의 관계가 버그러질 위험성이 생길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것은 세계금융위기로 하여 나토가 분렬의 위기에 처하고있으며 제국주의가 날이 갈수록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이달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 미국 등 서방세력이 끊임없이 감행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 등이 시대와 력사발전을 가로막는 도전적인 문제들로 제기되였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벌어졌다. 인류는 이달에도 그러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부합되는 사회적, 물질적조건들을 적지 않게 마련해놓았다.

력사는 자주, 평화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있다.

리 경 수

ㄱ-11039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